

축·사진·국악·음악·미술·문학·연예·연극·무용 등 9개 부문에 걸쳐 예술발전에 공을 세운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희원은 문학부문의 성지월(시인), 미술부문의 최정길(경인미술대전운영위원장)씨 등과 함께 건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동훈 회원은 그동안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등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건축계소식 archi-net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총공식 출범

지난 11월 25일 발대식 갖고 향후 사업추진계획 밝혀



현판식 광경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총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낙균 문화부장관과 이광노(서울대 명예교수) 조직위원장, 윤도근(홍익대 건축과 교수) 김영수(본협회 전임회장) 부위원장,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건축관련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상징도안 공모 당선작 시상식, 현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조직위는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건축이 모든 문화생활의 바탕이며 인류 문화유산이 된다는 기본이념 아래 다양한 건축문화활동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문화국가 이미지의 세계화를 창출하기 위한 밀레니엄사업을 비롯해 지역·도시의 정체성 찾기, 건축문화자산의 개발, 건축의 위상정립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현상공모를 통해 확정된 '건축문화의 해' 상징도안과 표어가 공개됐는데 엠블럼부문에서는 안중돈(건축설계 프리랜서)씨 작품이, 로고부문에서는 최 건·이재은(명지대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응모작이, 표어부문에서는 하세련(주부)씨의 응모작이 부문별 당선작에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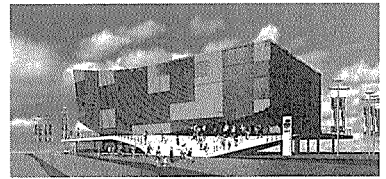
'99건축문화의 해 공식 엠블럼 및 로고

포세이씨 + 케이씨건축,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 당선

연면적 7백 40평 3층 RC조 건축물

2000년 5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릴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에서 POS-A.C(대표 심인보, 이강우)와 케이씨건축(대표 공 철)의 공동설계안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한 이번 현상설계의 당선작은 대지 1천1백여평, 연면적 7백4십평의 지상 3층 규모로 철골과 RC조로 건축될 예정인데 우리의 자연과 공간의 선적 이미지, 보자기 등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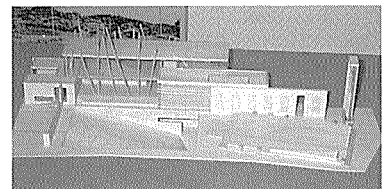
제1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수상자 발표

최우수상에 천병권 김기훈 공동작 '양동 1998'

천병권, 김기훈씨의 공동출품작 '양동 1998' 이 제1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에서 일반공모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최하고 울산건축사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이질문명의 만남' 이 주제로 제시된 가운데 총 60점의 작품이 응모, 이중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2점, 가작 2점 등 총 42작품이 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전민영씨의 '고요' 와 이호수 하화진(동아대 4년)씨의 'Cross of Faith' 등 2점이 차지했으며 가작은 박상준 김성남(대전대 3년)씨의 'In and Out' 이, 입선에는 구재형씨의 '양동 열린교회' 등 37점이 선정됐다.

한편 이들 일반공모전부문 수상작들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건축가 유진두(부명건축), 김기원(예원건축)씨 등 17인의 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됐다.



양동 1998 (김기훈, 천병권작)

제15회 건축가포럼

“한국건축가의 세계진출” 주제로
12월 8일 홍사단강당에서

한국건축가협회는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 서울 홍사단강당에서 「제15회 건축가포럼」을 개최한다.

‘미국건축설계의 프로세스 및 한국건축가의 세계 진출’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경원대 박항섭 교수의 사회로 재미건축가 허승희(레오나드 파커社)씨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무웅(단국대), 이특구(서울시립대) 교수가 비평을 맡는다.



제3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대상에 「향린빌라」,
「장신대 도서관·학생회관·강당」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한 제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심사결과 최동규(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씨가 설계하고 코오롱건설이 시공한 「장신대학교 도서관·학생회관·강당」이 비주거부문 대상을, (주)모람건축 김홍수씨가 설계하고 일건주택건설이 시공한 향린빌라가 주거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금상은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주) 건원 광홍길·김종국 설계, 유원건설 시공)과 「달빛마을 다가구주택」(대유건축 유봉열 설계, 도우건설 시공) 두 작품이 수상했다.

올해 경기도건축상에는 총 83점이 응모해 작품집과 현장심사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주거, 비주거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등 모두 13개 작품을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順)

대상

- 장신대학교 도서관·학생회관·강당 / 최동규(서인종합건축) / 코오롱건설(주) / 장신대학교
- 향린빌라 / 김홍수((주)모람) / (주)일건주택건설 / (주)대우, (주)일건주택건설

금상

-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 / 광홍길, 김종국(건원건축) / (주)유원건설 / 대한주택공사
- 달빛마을 다가구주택 / 류봉열(대유건축) / 도우건설 / 유주선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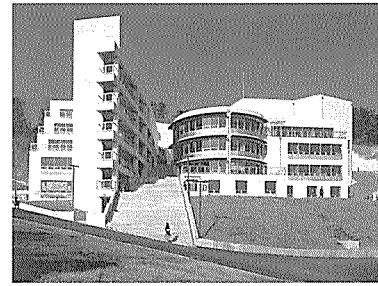
- 수원인계동빌딩 / 이종철(원우건축)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삼성물산(주)
- 곤지암 K씨 주택 / 함덕호(모람건축) / (주)모람 / 김준우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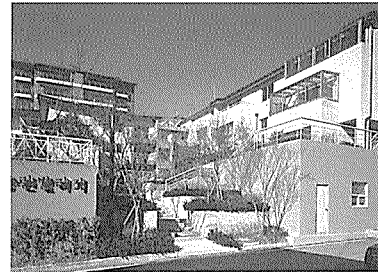
- 보람유치원 / 한경섭(한건축) / 인경종합건설(주) / 신서호
- 무율재 / 조병욱(동원건축) / (주)주용건설 / 심재익, 김경혜

입선

- CAFE en ROSE POISE II / 천근우(디장인그룹 아방건축) / 최범찬 / 이강철
- 힐타운 / 윤상국(관건축) / 권을성 / 권을성
- 해관재단 어린이집 / 최승원(양기주망건축) / 조영건영 / 해관재단 오영기
- 분당 다원 빌리지 / 김성탁(한인종합건축) / 다원건설 / 신용기
- 버들피리 / 김영목(영건축) / 임용란 / 임용란



장신대학교 도서관·학생회관·강당



향린빌라

인터넷 사이버 조형전 「cyDEX '98」

국민대 조형대학 6개 전공영역
종합 디자인전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디자인전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건축,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공예, 의상디자인, 실내디자인 등 6개 학과와 사이버디자인학부, 디자인대학원으로 구성된 국민대 조형대학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종합디자인전을 개최한다.

‘21세기의 키워드를 찾아서’란 주제의 이번 인터넷 조형전에는 1천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본과제전시를 비롯해 국제 사이버디자인 작품들이 소개되며 일반을 대상으로한 사이버디자인 공모전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 디자인의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 쇼핑몰이 개설돼 있으며, ‘문화디자인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문화인사와 예술가, 디자이너들이 쌍방향 토론을 벌이는 사이버좌담회도 중계된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sydex.org>

경기대 건축대학원 건축展

포스코센터에서 오는 10일까지 전시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포스코센터 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98학년도 2학기 건축전을 갖는다. 이번 건축전에는 졸업생을 포함해 모두 13개 디자인스튜디오 학생들의 가을학기 작품을 비롯해 드로잉, 건축사진, 조형예술과정 작품들이 전시된다.

한편 이번 전시기간 중에는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민선주(위가건축 대표), 박영건(범건축 대표)씨가 비평건축가로 참가하는 공개비평회도 열린다.

문의: 경기대 건축대학원 (02-390-5245~6)

건축가 최두남 초청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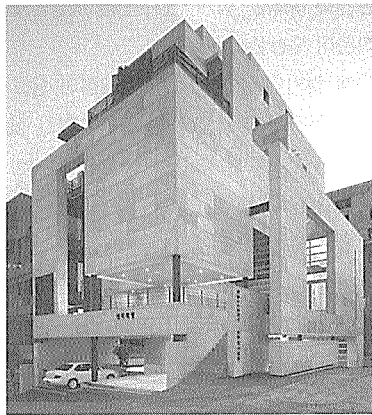
C3그룹 주최,
주제는 '건축적 경험의 실체'

월간 KA와 C3그룹이 공동주최한 「제5회 C3포럼 - 건축가 최두남 초청강연회」가 지난 11월 6일 연세대 제3공학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론화 과정으로서의 작업'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김종규씨는 자신의 건축을 가리켜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면서 "건축적 경험의 실체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이 경험은 절제와 여유에서 비롯된 단호함과 넉넉함 속에 삶의 풍요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가에 능력이 달려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버클리대와 하버드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91년 샌프란시스코 건축재단이 선정한 '젊은 작가상'을 수상

한 바 있으며 현재는 최두남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설계 강의도 맡고 있다.



공간의 명료성을 보여준 '센터화랑'(최두남작)

공간학생건축상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은 이창우의 2인 공동작

(주)공간사(대표 이상림)가 주최한 제16회 공간학생건축상의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기존의 공모전 운영방식과는 다르게 가상 인간을 위한 공간설계를 주제로 제시해 화제가 됐던 올해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한양대 건축공학부 이창우 이문재 홍라정씨의 공동작이 차지했다.

또 우수작에는 건국대에 재학중인 김성태 문현경씨의 공동작이 선정됐으며 박태현 하지욱(부산대) 서봉균(동아대)씨의 공동작과 김재열 김영수 김효진(금오공대)씨의 공동작이 각각 가작에 뽑혔다. 이밖에 CG부문 특별상은 유일산 서윤원 공동작이 수상했으며 최음원의 2인(성균관대 건축공학과)의 작품 등 모두 4개 작품이 입선작에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작은 아담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부터 출발해 빛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공간개념을 설정하여 태초의 공간에 대한 신화적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아담의

산책'이라는 주어진 주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설정이 돋보였으며, 건축을 풀어내는 논리와 수사학이 치밀한 짜임새를 가졌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공간학생건축상의 심사는 건축가 김현(에다건축 대표)씨가 맡았다.

한양대 도시대학원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도시건축설계 등 3개 학과 20명 선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는 99학년도 일반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도시개발경영, 교통물류, 도시건축설계 등 3개 학과로 일반전형을 통해 석사과정 20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도시건축설계학과의 경우 졸업설계 우수작 또는 그밖의 설계경기 수상자를 우대한다.

원서교부는 12월 9일까지, 접수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로 오는 12월 12일에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치른다.

제출서류는 대학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통과 사진(3cm×4cm) 3매이며 최종학격자는 오는 12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양대 도시대학원은 대학원 또는 과 단위로 모의도시개발 워크숍과 프로젝트 및 스튜디오 중심의 실무위주 교과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실전능력을 키워주는 한편 학생 스스로가 필요한 교과과정을 직접 디자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관련학과와 연구소, 공공·민간기업의 최고전문가들을 겸임교수진으로 확보해 폭넓은 협력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문의 :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학과 (02-290-1211~3)

'97/'98 sa학생작품展

19일까지 서울건축학교 전시실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sa(서울건축학교)가 '97/'98학년도 작품전을 갖는다.

건축가 서혜림(힘마건축 대표)씨가 전시 큐레이터를 맡아 지난 1년간의 서울건축학교 정규과정 교육방법과 그 결과를 확인시켜줄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서울건축학교 전시실에서 열린다. 서울건축학교는 지난 94년 11월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돼 2년여 동안 설계 및 이론 워크숍을 개최해 오다가 97년에 김수근 문화재단의 예술교육사업으로서 정규과정을 시작, 그동안 설계스튜디오와 설계지원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문의: 김수근문화재단 서울건축학교 (02-763-0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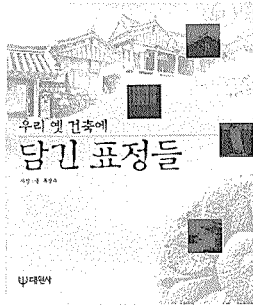
건축공간 안내

우리 옛건축에 담긴 표정들
정보화 사회의 건축가
해방의 건축

◇ 우리 옛건축에 담긴 표정들

이 책은 궁궐, 성곽, 사찰, 향교와 서원, 살림집으로 분류하여 30여 실물유구(實物遺構)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느낀대로 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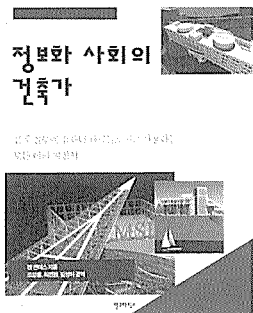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건축의 공간구성과 환경과의 조화에 관심을 가지고 건축물의 숨겨진 표정에 천착하고 있다. 즉, 인공물이면서 자연을 닮은, 그래서 인위적인 조경조차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 우리 건축에 심취해 있는 것이다.



경복궁과 창경궁, 수원화성 불국사 병산서원 추사고택 선교장 등 30여 유명 건축물의 6백여컷 흑백사진들이 진입순서대로 배열돼 있어 마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특히 일반인의 우리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

류경수著/ (주)대원사(02-757-6717) 펴냄 / 344쪽 / 1만5천원

◇ 정보화 사회의 건축가



오늘날 컴퓨터 CAD시스템이 거의 모든 건축설계사무소에 보급돼 설계작업 및 관련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와 관련해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의 내용은 1. 테크놀러지와 실무, 2. 디지털 매체의 언어와 운영시스템, 3. CAD와 지식 데이터베이스, 4. 정보화 지향 사무소의 구축과 미래의 예측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중간중간에 실무 경험자의 위트있고 핵심을 찌르는 경구들을 삽입하여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견들을 따로 요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미 정보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건축가에게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재점검하고 더욱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며, 아직 컴퓨터의 활용률이 높지 않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에게는 디지털 오피스 구축에 관한 기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원제가 'The Digital Architect'인 이 책의 저자는 현재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전문회사인 미국 Z.G.F.P사의 정보서비스 관리자로 활동중이다.

캔 샌더스著 / 조성룡, 최진원, 김성아 共譯 / 안그라픽스(02-763-2320) 펴냄 / 452쪽 / 1만8천원

◇ 해방의 건축-인간해방의 견지에서 본 건축가 조건영, 민현식

책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책의 기본 관점은 건축의 문제를 보다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며 그 중심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 건축의 문제를 인간성 회복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려는 조건영과 민현식 두 건축가의 작품과 철학을 논한 비평서이다.

이들 두 건축가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풀어나가는 방법, 건축적 제안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두 건축가의 철학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그때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지, 그 대안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이종건著 / 도서출판 발언(02-929-3546) 펴냄 / 1만4천원

